

# 아파트 옆 당나귀 울음소리에 주민들은 괴롭다

### 광주 북구 주민들 10여년째 민원...“시끄러워 창문 못 열어” 지자체 “닭 등 동물 울음소리 ‘소음’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데없이 ‘당나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나귀가 10여초 동안 울기 시작하자, 울음소리가 바로 앞 아파트 벽을 타고 찌렁찌렁 울렸다.

중흥동 영무예다음, 무등산자연어울림, 동우아스트로 등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 곳에 수년째 살고 있는 당나귀가 수시로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어름에 창문도 못 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이 다양해지면서 광주 시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동물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당나귀·닭 등이 내는 울음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며 수년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이 아니다”며 “행정적 제재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일

대에서는 10여년 동안 ‘당나귀가 내는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3일 당나귀를 기르는 집이 있다는 언덕을 올라가보니, 10살로 추정되는 당나귀가 10여㎡(3평) 정도 되는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와 당나귀 우리 사이 거리는 불과 수십미터 수준이었다. 당나귀는 사람이 다가오자 큰 소리로 ‘췌익 췌익’ 울어대기 시작했다.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인 황종만(83)씨는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10여년째 당나귀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골이 아프다”며 “당나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울다보니 시끄러워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주민 허휘(63)씨는 “당나귀가 있는 줄 모르고 3년 전에 들어왔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지난해 3월 집을 내놨다”며 “특히 밤이면 소리가 더 크게 울려 자다가 깜짝 놀라 잤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나귀 주인 50대 남성 정모씨는 “이 지역에 아

파트가 들어서기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당나귀를 키웠다”며 “당나귀는 나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나귀를 울리고 싶어도 마땅한 땅이 없다”며 “당나귀에게 입을 반만 벌릴 수 있는 입마개를 24시간 착용시켜 소음을 줄이고, 방음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주택단지에서는 닭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주택에서 3년 전부터 수탉을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닭이 우렁찬 목소리로 수시로 울어댄다는 것이다. 창문을 이중으로 닫아도 닭 울음소리가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윤모(56)씨는 “주인에게 닭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알겠다’는 대답 뿐이었다”며 “이웃과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참고 살고 있지만 집에서조차 쉴 수 없어 분통이 터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구청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으로 분류되지 않아 울음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판가름할 기준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 울음소



당나귀가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언덕에 있는 우리 안에서 쉬고 있다.

리로 인한 피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은 공사장 소음 혹은 동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시로 처리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 말로만 중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나귀 등과 관련된 소음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



토마토 안심하고 드세요 광주시 남구 대지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25일 농부가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 방문객 탐방로만 이용하세요

지리산 반달가슴곰(사진)이 겨울잠을 깨고 활동을 시작했다.

25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에서 벗어날수록 반달가슴곰과 마주칠 확률이 높다”며 “지리산을 방문할 때는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리산에는 올해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7마리를 포함해 86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끼를 출산한 어미 반달가슴곰은 보호반응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지리산에서 수집한 반달가슴곰 위치 정보 3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탐방로 주변에서 밀어질수록 반달가슴곰이 활동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반달가슴곰이 관찰된 빈도는 0.44%였고, 100m 이내가 2.86%, 1km 이내는 61.43%였다.

반달가슴곰이 사람에게 대한 경계심이 많은 만큼, 탐방로에서 밀어질수록 반달가슴곰의 활동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환경부 등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탐방로와 샛길 입구에 반달가슴곰 출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탐방객이 반달가슴곰과 마주치지 않도록 무인 안내방송시스템을 10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대피소와 탐방로마다 곰 활동지역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곰이 멀리 있는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가까이 곰을 만날 경우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으로 벗어나야 한다”며 “반달가슴곰과 사람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비’ 광주·전남 오늘 새벽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끼어 있는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예고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새벽부터 전남 해안과 동부내륙지역에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인 28일 오전부터는 광주·전남 전 지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26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처님 오신 날인 27일에는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12~16도로 평년보다 살짝 높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28일 오전부터 광주·전남 전 지역에 비가 다시 시작돼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인 29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가 내림에 따라 낮 최고기온은 20도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29일 저기압의 유동성에 따라 오후부터 많은 비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

## 교통사고 100건 중 8건 ‘음주운전’

5년간 전국서 1300여명 숨져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8%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1300여명이 숨지고 13만4000여명이 다쳤다.

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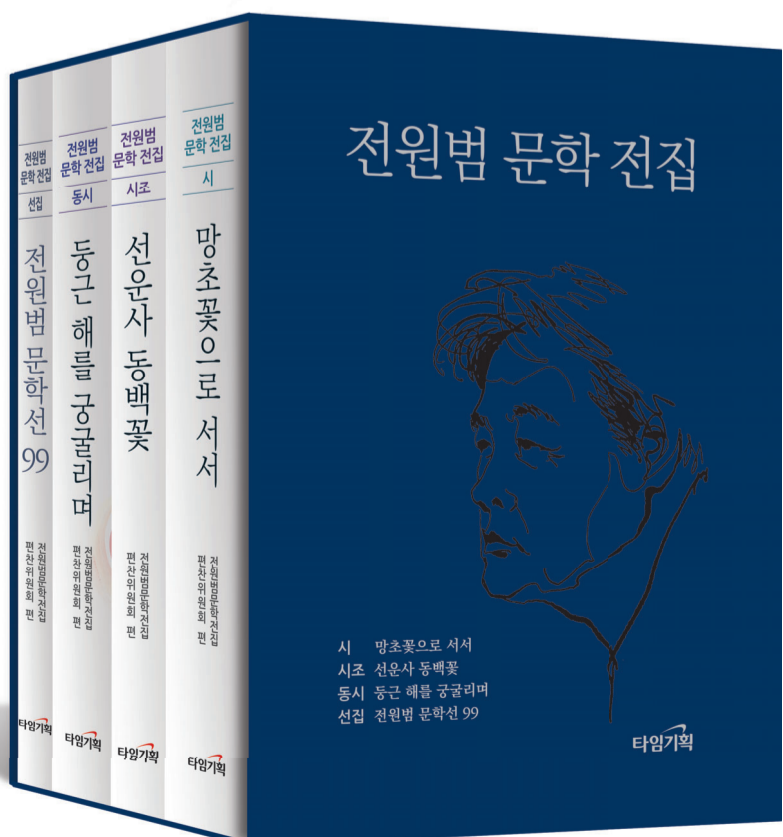
향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고,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냈으며, 각 연령대는 모두 20%대를 차지해 음주운전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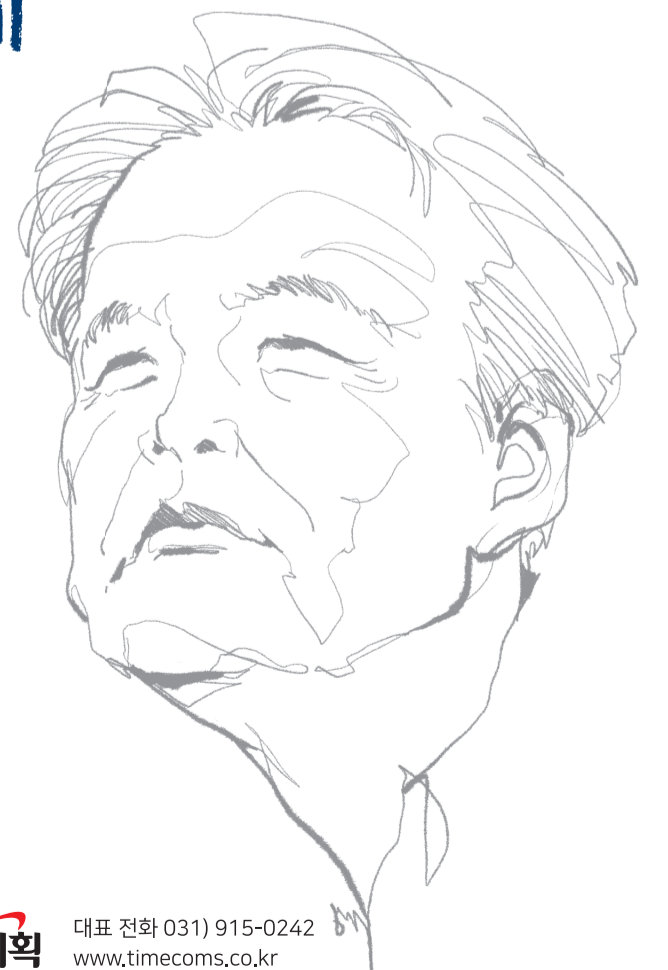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